

정부, 겨울철 감기 급증에 '의약품 사재기' 첫 현장 조사

복지부·지자체, 합동 조사 시행 계획 발표 사재기 의심 기관 행정처분... 벌금 등 가능 수급 예측 모형 개발, 생산 역량 강화 지원

겨울철 감기가 급증한 상황에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재기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또 향후 의약품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수요 예측 체계와 국내 생산 역량 강화 등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합동 현장 조사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의약품 종류는 구체적으로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인 슈도페드정(삼일 제약(주))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인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 제약(주)) 등이다. 이 의약품 등은 2-3년 전부터 구하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품목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날 설명회에서 "비급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용량 파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약 중에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주는 약으로 우선 선정하고, 민관협의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오면 복지부와 약사회가 다시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주 인플루엔자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수는 61.3명으로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감기약의 경우 생산량이 전년 대비 6%, 독감 치료제는 32.3% 증가했으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등 각종 호흡기 감염병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유행해 수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이달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

되는 약 400여개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슈도페드정 경우 구매량이 상위 12%, 세토펜 현탁액 500ml의 경우 구매량이 상위 37% 수준인 약국 중 사용량이 구매량 대비 25% 이하인 곳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용률이 0%인 곳이 40여개소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환자가 어떤 약을 쓸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재고량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예측과 현실이 달랐던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장에 나가봐야 사재기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매점매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업무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번 현장 조사 계획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복지부가 약을 쌓아두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약국에 공문으로 공지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가 갑자기 이뤄지거나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를 나간다고 해서 사재기 처분 대상이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갖고 있는 재고를 현장에 반납하거나 유통되도록 해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고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재고량을 갖고 있는 관계가 있어서 적정선에 대해 약사회와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공급 지연으로 논란이 된 항암주사제 '5-FU'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이 약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정보를 공유 받고 공정 개선 과정 중 지연으로 원인이 확인됐다"며 "제조 후 과정을 최대한 압축하려 노력해 최근에는 공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개 제조사만 '5-FU'를 공급하고 있어서 향후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내 추가 공급을 요청했다"며 "1개사가 영향을 받혀 2월 이후로는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수급 불안 의약품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약가 인상, 생산 독려, 원료 수급 행정 지원, 국가 비축분 시장 공급 등 대응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향후 수급 불안 발생을 감지하는 인공지능 모형 등을 통해 수요 예측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만들 경우 약가를 가산하는 등 생산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의약품 수급 불안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 생산·수입 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응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 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간병비 ‘하루 9만원’ 절감”



정부가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올해 서비스 병동에 입원할 경우 일반 병동 대비 하루 약 9만원의 간병비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6인실 11.2만원→2.2만원으로 줄여 서비스 제공 병원 699개소……7만5293개 병상 중환자 전담병실 7월 도입…조규홍 현장 방문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합병원 6인실 입원비는 본인부담금 외에 사적 간병비가 11만2197원 들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 병동의 경우 입원료 본인부담금만 2만2340원을 내면 돼 8만9857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지난 2015년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가 일반병원(급성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 등이 환자에게 간병을 포함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기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699개소로 총 7만5293개 병상이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중증 수술 환자, 치매·심방 환자 등을 전담 관리하는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올 7월 도입하고 간호조무사 인력을 최대 3.3배 확대 배

치하는 골자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성애병원을 찾아 서비스 병동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국민들의 간병 부담 경감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성애병원은 자체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수준을 높여 중증 환자 전담병실을 운영하고 있다.

조 장관은 "오늘 현장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들이 밝힌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윤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